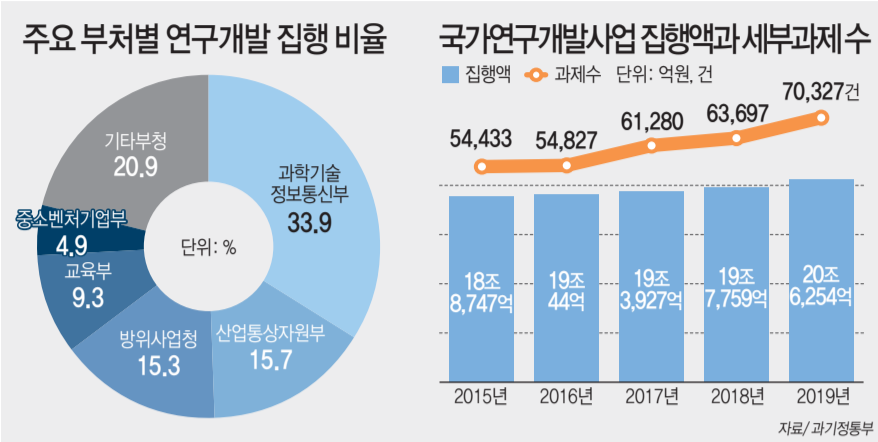


# 예산증가율 밀도는 R&D 투자... 말로만 '기술개발'

과기부, 국가연구개발사업 분석  
작년 집행액 20.6조... 4.3% 증가  
5년 집행액, 총 예산의 0.4배 불과



지난해 정부 연구개발(R&D) 집행액은 20조6254억원으로 전년 대비 4.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정부 R&D 집행규모는 최근 5년간 연평균 2.2% 증가한 데 그쳐 정부 총예산의 5년간 연 평균 증가율 6.4%와 비교해 0.4배 수준으로 상대적으로 낮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중소·중견기업 R&D 집행액은 꾸준히 증가한 반면 대기업은 오히려 줄었으며, 지방 R&D 집행규모가 늘어난 데 반해 수도권은 감소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3일 개최된 '제21회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 운영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19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분석 결과(안)'를 보고했다.

지난해 35개 부·처·청·위원회가 국가 R&D 과제로 847개 세부사업, 7만327개 세부과제에 투자해 세부 과제수는

전년 대비 10.4% 늘었으며, 연평균 6.6%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정부 연구개발 예산은 20조8480억원으로 98.9% 집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투자규모는 기계(17.5%), 정보·통신(10.6%), 전기·전자(9.6%), 보건 의료(9.2%) 순이었으며, 최근 5년간 융합 분야 과제 집행액은 연평균 3.1% 증가했다.

부처별로는 과기정통부가 7조원으로 33.9%를 차지했으며, 산업부 3조2000억원(15.7%), 방위청 3조2000억원(15.3%), 교육부 1조9000억원

(9.3%), 중기부 1조원(4.9%)으로 5개 부처가 전체의 79.1%를 차지했다.

연구수행주체별 집행규모는 대학 5조원(24.4%), 중소·중견기업 4조5000억원(21.9%),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산하 출연(연) 4조원(19.2%), 부처 직할 출연(연) 3조7000억원(17.9%), 경제인문사회계 출연(연) 6000억원(3.0%), 대기업 4000억원(1.8%) 등 순이었다.

대학 집행 규모가 2015년 4조3000만 원에서 지난해 19년 5조원으로 증가했으며, 중소·중견기업은 2015년 3조4000억원에서 지난해 4조5000억원으로

늘었다. 반면 대기업의 집행액은 2015년 6000억원에서 지난해 4000억원으로 오히려 감소했다.

지역별 집행규모는 대전을 제외한 지방이 7조9000억원(38.8%), 수도권(서울·경기·인천) 6조7000억원(32.6%), 대전 5조8000억원(28.6%) 순이었다. 지역 과학기술 혁신역량 제고와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 등에 따라 최근 5년간 지방 R&D 집행비중은 연 평균 3.7%로 꾸준히 증가한 반면, 수도권 R&D 집행비중은 2.9%가 줄었다.

연구자 주도로 자유롭게 범위를 설정해 연구하는 '연구자 주도 기초연구사업'은 집행액이 1조7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19.6% 증가했고, 과제 수는 2만3104개로 전년 대비 31.7% 늘었다.

연구책임자별로 보면, 총 연구책임자 수는 4만4578명, 연구책임자 1인당 평균 연구비는 전년과 비슷한 3억6000만원으로 최근 5년간 평균 4.9%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연구책임자 중 남성은 82.5%, 여성은 17.5%로 여성 비중이 여전히 20% 미만으로 낮았다. 다만, 최근 5년간 여

성 연구책임자의 증가율이 12.7%로 남성 연구책임자 증가율(5.8%)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개발 과제 당 평균 연구비는 전년 대비 2000만원 감소한 2억9000원이었다. 연구비 구간별 과제 수로는 5000만원 미만 2만5770(36.6%), 5000만원 이상~2억원 미만 2만9146개(41.4%), 2억원 이상이 1만5411개(21.9%)로 나타났다.

세부과제지원 유형별로는 자유공모형이 6조8000억원(33.0%), 품목지정형이 4조7000억원(22.8%)으로 상향식 과제가 10조5000억원(55.8), 하향식 과제는 9.1조원(44.2%) 집행됐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연구자 주도 기초연구 확대에 대학 R&D 집행규모가 증가했으며벤처·중소기업 기술역량 강화 등에 따라 중소·중견기업 집행액도 증가 추세"라며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에 따라 연구자 주도 기초연구지원사업 투자도 2017년 1조2600억원에서 오는 2022년 2조5200억원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채윤정 AI전문기자 echo@metroseoul.co.kr

## 재난지원금 효과... 생산자물가 하락세 주춤

한국은행, 5월 생산자물가지수  
농·축·수산물 전월비 2.7% 상승



지난달 생산자물가 하락세가 멈췄다.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이 지급되면서 농림수산물 물가가 올랐다.

23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5월 생산자물가지수는 101.98(2015년=100)로 전월과 같았다. 3개월 연속된 하락세가 일단 멈췄다.

품목별로는 농림수산물이 농산물과 축산물, 수산물이 모두 올라 전월 대비 2.7% 상승했다.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으로 소비가 확대된 것으로 보인다. 금융보험서비스와 음식점·숙박서비스 등을 포함한 서비스 물가는 0.1% 올랐다.

반면 공산품 물가는 화학제품(-0.7%), 컴퓨터·전자·광학기기(-0.5%) 등을 중심으로 0.2% 하락했다.

생산자물가는 전년 동기 대비로는 1.7% 하락했다.

특히 수요가 위축된 석탄·석유제품

물가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5.5%나 급락했다. 한은이 생산자물가지수를 작성한 1965년 1월 이후 최대 하락폭으로 기존 최대 기록은 4월의 -43.5%였다. 수입품까지 포함해 가격변동을 측정하는 국내공급물가지수는 전월 대비 1.2%, 전년 동월 대비 5.1% 떨어졌다.

/안상미 기자 smahn1@

## 日 롯데 신동빈 해임안, 해프닝 그칠듯

(롯데그룹 회장)

오늘 롯데그룹 정기주주총회 개최  
신동주 전 부회장, 주주제안서 제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회장을 맡고 있는 일본 롯데홀딩스가 24일 정기주주총회를 열고 신 회장의 이사 해임 안건을 논의한다.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SDJ코퍼레이션 회장)이 제출한 주주제안서에 따른 것으로 롯데가의 경영권 갈등이 다시 촉발될 업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번 주총은 지난 4월 신 회장이 일본 롯데홀딩스 회장에 취임한 이후 처음 열리는 주총이다. 하지만 신 회장은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일본의 외국인 입국 금지 조치가 풀리지 않아 주총에는 불참한다.

신 전 부회장은 지난 4월 신 회장의 이사 해임의 건과 유죄 판결을 선고받은 인물의 이사 취임을 방지하기 위해 이사 결격 사유를 신설하는 정관 변경

의 건을 담은 주주 제안서를 제출했다.

당시 신 전 부회장은 "롯데홀딩스 최대주주인 광윤사 대표이자 주주로서 롯데홀딩스의 기업 지배구조 기능이 결여된 현 상황을 근본적으로 바로잡기 위해 주주제안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신 회장이 지난해 10월 국정농단·경영비리 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선고 받으며 롯데그룹의 기업 가치가 크게 훼손된 데 책임을 물어 이사직에서 해임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재계에서는 해당 안건이 처리될 가능성이 낮아 경영권 분쟁은 '해프닝'으로 끝날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고 있다. 신 전 부회장이 롯데홀딩스의 최대주주인 광윤사의 대주주로 의결권은 있지만 실제 경영에 참여가 어렵고 일본 롯데홀딩스 주요 주주인 종업원주회(27.8%)와 임원주회(6.0%)가 신 회장을 지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표 대결에서도 광윤사와 신 전 부회장의 지분율이 29.72%인 반면 신 회장 지분율과 종업원주회, 임원주회 지분율은 37.8%로 8.08%포인트(P) 차이가 난다.

신 전 부회장은 이번 정기주주총회에서 신 회장의 이사 해임 안건이 부결될 경우 일본회사법 854조에 따라 법원에 신 회장의 이사 해임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신 회장 지분율이 29.72%인 반면 신 회장 지분율과 종업원주회, 임원주회 지분율은 37.8%로 8.08%포인트(P) 차이가 난다.

신 전 부회장은 이번 정기주주총회에서 신 회장의 이사 해임 안건이 부결될 경우 일본회사법 854조에 따라 법원에 신 회장의 이사 해임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신원선 기자 tree6834@

## 업계, 저칼로리·저나트륨 등 건강식품 출시 "4050세대 넷플릭스 니즈 늘어... B2B 계약에 영향"

>> 1면 '푸드테크 기획'서 계속

한성식품은 치자와 미역, 양배추 등을 활용한 웰빙 김치를 내놨다. 대상 청정원은 국산 구운 천일염을 사용해 나트륨 함량을 20% 낮춘 '건강한 아보카도유 재래김'을 선보였다.

음료도 당분을 낮췄다. 코카콜라는 최근 저칼로리 과즙 스파클링 음료 '미닛메이드 스파클링 청포도 칼로리 10' 새로 출시했다. 이 음료수는 이름 그대로 350ml 용량 기준 10kcal밖에 되지

않는다.

동원F&B '리얼 룡 맛살' 2종은 청정해역에서 자라 개살과 랍스터 살을 넣은 저지방 고단백 식품으로 각광을 받고 있다.

다이어트 관련 스타트업 다노가 운영하는 다노샵의 식품들도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해당 온라인 몰의 인기 상품 중 하나인 '그릭 요거트'는 꾸덕꾸덕한 질감으로 가공돼 온도를 달리하면 젤리나 아이스크림으로 활용할 수 있어 많이 팔린다. /이세경·원은미 수습기자 seilee@

>> 1면 '이통사, 미디어 공룡...'서 계속

스마트폰 디바이스로 영상을 보는 것이 익숙치 않은 중·노년층도 IPTV를 이용해 넷플릭스 콘텐츠를 크고 편하게 즐기고 싶은 니즈가 늘어났다는 것이다.

노창희 미디어미래연구소 박사는 "이동통신사 입장에서 가입자 유지 및 확대에 넷플릭스 제휴가 바람직한 결과이고 경쟁자를 견제하는 심리도 있을 것"이라며 "4050세대 또한 넷플

릭스를 보려는 니즈가 늘고 자녀들이 좋아하면 유인효과가 될 수도 있어 B2B 계약에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때문에 향후 안방에서도 커다란 스크린으로 넷플릭스를 보는 이용률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넷플릭스라는 글로벌 공통의 힘이 커져 국내 사업자와 역할별 이슈가 더욱 커지는 부작용이 나타날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SK텔레콤 자회사 SK브로드밴드는

현재 넷플릭스와 망 이용 대가를 둘러싼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소송 중이더라도 넷플릭스의 콘텐츠 파워로 SK텔레콤 또한 넷플릭스와의 협상 길을 막아둔 것은 아니다.

업계 관계자는 "망 이용대가 문제 등 넷플릭스 관련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문제들도 산적해있다"며 "국내 사업자 역할별 이슈는 대응이 필요하지만 넷플릭스의 콘텐츠 영향력으로 종속성이 있어 쉽지는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나인 기자 silkni@